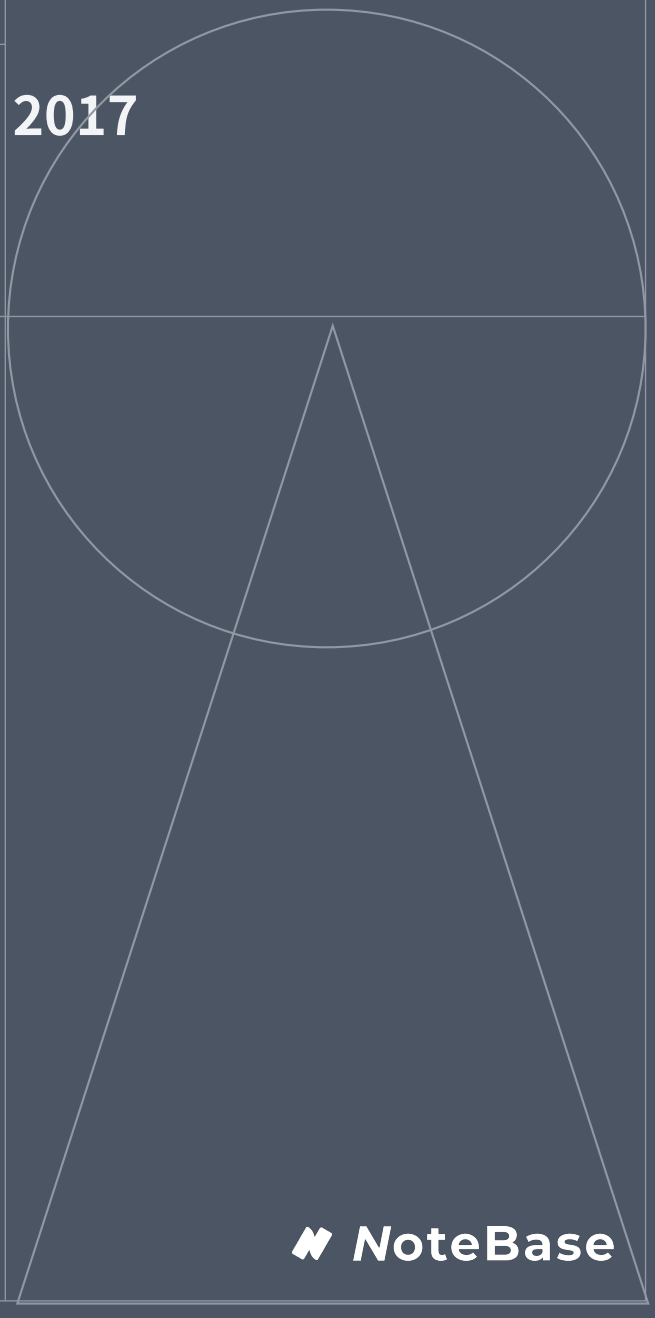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7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7

문 1. <보기>의 문장을 바탕으로 국어의 형태소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숙제를 주신다.

① '선생님께서'의 '께서', '우리들에게'의 '들', '주신다'의 '주'는 모두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② '선생님께서'의 '께서', '숙제를'의 '를', '주신다'의 '다'는 모두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③ '선생님께서'의 '님', '숙제를'의 '숙제', '주신다'의 '주'는 모두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④ '선생님께서'의 '선생', '우리들에게'의 '우리', '숙제를'의 '숙제'는 모두 자립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립 형태소는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이고, 의존 형태소는 다른 형태소에 기대어야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이다.
실질 형태소는 구체적인 어휘 의미를 지닌 형태소이고,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 관계나 기능을 나타내는 형태소이다.
따라서 자립/의존과 실질/형식은 같은 기준이 아니므로,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경우와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인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께서'는 조사, '들'은 홀로 쓰이지 못하는 접사, '주신다'의 '주'는 어간이므로 모두 의존 형태소이다. 뜻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은 단독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② O
'께서'와 '를'은 조사이고, '다'는 종결 어미이므로 모두 문법 기능을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이다. 각각 주어 표시, 목적어 표시, 문장 종결의 기능을 맡는다.

③ X
틀린 부분은 '님'을 실질 형태소라고 본 점이다. '숙제'와 '주'는 구체적인 어휘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가 맞지만, '님'은 높임의 기능을 더하는 접사이므로 형식 형태소로 본다. 올바르게는 '선생님께서'의 '님'은 형식 형태소이고, '숙제를'의 '숙제'와 '주신다'의 '주'는 실질 형태소이다.

④ O
'선생', '우리', '숙제'는 각각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이므로 모두 자립 형태소이다. 이들은 문장 안에서도 조사 없이 기본 형태로 홀로 설 수 있다.

오답 포인트

'의존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같은 말처럼 섞어 판단하면 ③에 흔들리기 쉽다. '님'은 혼자 쓰이지 못하므로 의존 형태소이지만, 동시에 높임 기능을 더하는 형식 형태소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단독 사용 가능 여부로 자립/의존을 가르고, 그다음 구체적 어휘 의미가 있는지 여부로 실질/형식을 다시 판단하면 된다. 조사와 어미는 형식 형태소로 보고, 어간은 대체로 실질 형태소로 본다.

암기 포인트

자립/의존은 홀로 설 수 있는지로, 실질/형식은 뜻이 실질적인지 문법적인지로 가른다.

NoteBase

문 2. 다음 중 상대 높임법의 등급이 다른 하나는?

① 여보게, 어디 가는가?

② 김 군, 벌써 봄이 왔다네.

③ 오후에 나와 같이 산책하세.

④ 어느덧 벚꽃이 다 지는구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상대 높임법의 등급, 특히 하게체와 하오체의 종결형을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하게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어느 정도 예를 갖추어 말할 때 쓰는 등급으로, '-는가', '-다네', '-세' 같은 종결형이 나타난다.
하오체는 예사 높임의 한 등급으로, '-오', '-소', '-구려' 같은 종결형이 나타난다.
판단 기준은 문장의 내용이 아니라 끝맺는 종결어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어디 가는가?'의 '-는가'는 하게체 종결형이므로 다른 등급이 아니다. 이 선지를 다른 하나로 고치면 '어디 가오?'처럼 하오체 종결형으로 바뀐다.
② X: '봄이 왔다네.'의 '-다네'는 하게체 종결형이므로 ①과 같은 등급이다. 이 선지를 다른 하나로 고치면 '봄이 왔소.'처럼 하오체 종결형으로 바뀐다.
③ X: '산책하세.'의 '-세'는 하게체 종결형이므로 역시 같은 등급이다. 이 선지를 다른 하나로 고치면 '산책하오.'처럼 하오체 종결형으로 바뀐다.
④ O: '지는구려.'의 '-구려'는 하오체 종결형이므로 ①~③의 하게체와 등급이 다르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문장 분위기만 보고 높임 정도를 막연히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어휘가 아니라 종결어미를 보는 문제이며, '-는가', '-다네', '-세'를 하게체로 묶고 '-구려'를 하오체로 분리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대 높임법 문제는 각 문장의 끝어미만 따로 떼어 분류하면 빠르다. '-는가', '-다네', '-세'가 보이면 하게체로, '-오', '-소', '-구려'가 보이면 하오체로 판단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하게체는 '-는가·-다네·-세', 하오체는 '-오·-소·-구려'이다.

NoteBase

문 3. “이렇게 된 터에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다.”의 ‘터’와 같은 문맥적 의미로 쓰였다고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① 첫 출근 날이라 힘들었을 터이니 어서 쉬어.

②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터에 남 걱정을 한다.

③ 이제야 후회한다고 해도 너무 늦은 터였다.

④ 이틀을 굶은 터에 찬밥 더운밥 가릴 겨를이 없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의존 명사 '터'가 문맥에서 '형편·처지·상황'을 뜻하는지, 아니면 '-을 터이다' 구성으로 추측을 나타내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터'가 형편을 뜻하면 이미 벌어진 사정이나 처지를 가리킨다.
'이렇게 된 터에', '늦은 터', '굶은 터'처럼 이미 놓인 상황을 받는다.
반면 '-을 터이다'의 '터'는 앞으로 그러하리라는 예상이나 이미 그랬으리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문법 구성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힘들었을 터이니'의 '터'는 '-을 터이다' 구성으로,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나타낸다. 원문의 '이렇게 된 터에'처럼 이미 처한 형편을 뜻하는 용법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원문과 같은 뜻으로 본 점이며, 형편의 뜻으로 고치면 '첫 출근 날이라 힘들었던 터이니'처럼 쓸 수 있다.
② O: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터에'는 자기 형편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에라는 뜻이다. 이미 놓인 처지나 형편을 나타내므로 원문의 '터'와 같다.
③ O: '너무 늦은 터였다'는 이미 때가 늦어 버린 상황이었다는 뜻이다. 이 역시 형편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터'이다.
④ O: '이틀을 굶은 터에'는 이틀을 굶은 상황이므로라는 뜻이다. 현재의 처지나 사정을 바탕으로 뒤 내용을 잇는 용법이므로 원문과 같다.

오답 포인트

겉으로 모두 '터'가 들어가 있어도 의미가 같지는 않다. ①의 '터'는 독립적인 형편의 뜻이 아니라 '-을 터이다'라는 추측 구문 안에 들어 있으므로, 형태만 보고 같은 의미라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앞말이 이미 벌어진 처지나 상황을 받으면 '형편'의 '터'로 본다. 반대로 '-을 터이다', '-을 터이니'처럼 이어져 예상·추측이 되면 형편의 '터'와 다른 용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된 터에·늦은 터·굶은 터'는 형편, '-을 터이다'는 예정·추측이다.

NoteBase

문 4. 다음 소설에서 사용된 문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향집에 돌아와서 농사를 한번 지어 보는데, 뼈에 붙은 농사일이 서툰 사람 먼저 알고 사흘거리 잔상처요 닷새마다 몸살이라, 지게 지면 뒤뚱뒤뚱 지게목발 따로 놀고, 삽질이며 괭이질에 도리깨질 쟁기질이 어느 하나 고분고분 손에 붙는 일이 없다. 힘 쓰기는 더 쓰는데 쓰는 힘 헛돌아서, 연장도구 부셔먹고 논밭 두렁 무너지고, 제 몸뚱이 다치기에 넘 몸뚱이 겁주기라… 뼈빠지게 일한다고 뼈빠진 값 다 받을까. 하루 저녁 비바람에 일년 농사 다 망친다.
- 서정인, 「달궁」

① 4·4조의 율격은 판소리에서 고도로 구사되는 것으로, 위의 소설은 판소리 문체를 현대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② 3음보격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민요적인 느낌을 주며 향토적인 정서를 환기한다.

③ 판소리의 사설과 닮아 있으며 전통적인 정서를 환기시킨다.

④ 사투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민중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정인의 소설에 나타난 판소리 사설체의 수용 양상과 그에 따른 율격, 향토성, 민중적 성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판소리 사설체는 판소리의 사설처럼 길게 이어지는 나열, 반복, 입말, 장단감이 살아 있는 문체이다. 이 지문은 4음보 내지 4·4조의 율문성과 토속어, 사투리가 두드러진다.
민요적 율격은 대체로 3음보의 단순하고 노래조인 반복이 중심이 된다. 이 지문은 짧고 단순한 민요조라기보다 판소리 사설처럼 길고 구어적으로 밀고 나가는 문체에 가깝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4·4조의 율격은 판소리 사설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이 지문도 장단감 있는 반복과 나열을 통해 판소리 문체를 현대 소설 속에 수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X
틀린 부분은 "3음보격의 반복적인 사용"이다. 이 지문은 민요의 전형적인 3음보가 아니라 판소리 사설에 가까운 4음보 내지 4·4조의 율문성을 보인다. 따라서 이 선지는 "판소리 사설에 가까운 율문적 문체로 향토적 정서를 환기한다" 정도로 고쳐야 옳다.

③ O
판소리의 사설과 닮아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긴 호흡의 문장, 구어적 표현, 반복과 나열이 어우러져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④ O
사투리와 토속적 어휘를 적절히 사용하여 민중적 성격을 드러낸다. 생활 현장의 입말과 농사일의 고단함이 생생하게 살아 있어 서민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가 강화된다.

오답 포인트

향토성이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민요적 3음보라고 연결하면 ②에 끌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향토적 정서라는 효과는 맞게 제시하면서, 그 형식적 근거를 민요체로 바꾸어 놓은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체 문제에서는 먼저 리듬의 근원을 구분한다. 긴 나열, 입말, 사투리, 장광설 같은 흐름이 두드러지면 판소리 사설체로 보고, 짧고 단순한 3음보 반복이 두드러질 때 민요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긴 사설과 나열, 사투리가 두드러지면 판소리체이고, 짧은 3음보 반복이 중심이면 민요체이다.

NoteBase

문 5.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합리성이 인간의 본래적인 특성이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 이러한 합리성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관점을 지닌 무수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어울려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공동체의 합리적인 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단순히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타당한 논리를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한 주장에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존중해 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근거를 제시하고 진정으로 사려 깊게 논증한다면 상대방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것이고, 이로써 당신의 생각을 인정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의 논증이 일관되고 견고해 보일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생각이 깊은 올바른 사람이라고 기억할 것이다.

① 합리적인 공동체의 미래

② 합리적 사고의 의미

③ 인간의 사회적 특성

④ 합리적 논증의 필요성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문에서 반복하여 강조한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곧 배경 설명과 결론을 구분하여 주제를 찾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제는 글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생각이다. 배경, 이유, 예시는 주제를 뒷받침하는 재료일 뿐 주제 자체와 같지 않다.
이 지문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한 뒤, 단순한 합리적 사고를 넘어 다른 사람이 수용하거나 존중할 수 있을 만큼 타당하게 논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결론을 거듭 강조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합리적인 공동체의 미래'가 틀린 표현이다. 지문은 공동체의 미래상을 전망하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타당하게 논증해야 한다는 태도를 말한다. 올바르게는 '합리적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논증 태도' 정도가 된다.
② X: '합리적 사고의 의미'가 틀린 표현이다. 지문은 합리적 사고의 정의나 의미를 해설하는 글이 아니라, 그런 사고를 다른 사람 앞에서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일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합리적 사고를 표현하는 논증의 필요성'이 된다.
③ X: '인간의 사회적 특성'이 틀린 표현이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내용은 논증의 필요성을 이끌어 내는 근거일 뿐 글의 최종 주제는 아니다. 올바르게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필요한 합리적 논증'이 된다.
④ O: 지문은 '타당한 논리를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최소한 존중해 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일관되고 견고해 보일 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며 합리적 논증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지문에 실제로 나온 표현이라 눈에 잘 들어오지만, 둘 다 중심 생각이 아니라 부분 내용이다. 주제 문제에서는 많이 언급된 소재보다 글의 결론이 어디에 모이는지를 봐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제 문제에서는 각 문장을 같은 비중으로 보지 않는다. 글의 앞부분에서 제시한 배경과 이유를 걷어 내고, 필자가 결국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한 문장으로 묶이면 정답에 가까워진다.

암기 포인트

배경은 인간의 사회성이고, 결론은 합리적 논증의 필요성이다.

NoteBase

문 6. 다음 중 합성어로만 묶인 것은?

① 손목, 눈물, 할미꽃, 어깨동무, 굳세다, 날뛰다

② 잠보, 점쟁이, 일꾼, 덮개, 넓이, 조용히

③ 지붕, 군것질, 선생님, 먹히다, 거멓다, 고프다

④ 맨손, 군소리, 풋사랑, 시누이, 빗나가다, 새파랗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합성어와 파생어를 형태소 결합 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이고,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 새 단어가 된 것이다.
판단 축은 결합 성분이 독립적인 어근끼리인지, 접두사·접미사가 붙은 것인지이다.
단일어는 더 분석되는 결합 관계가 없는 하나의 어휘로 본다.

선지별 해설

1번 O: 손목, 눈물, 할미꽃, 어깨동무는 체언+체언 결합이고, 굳세다와 날뛰다는 용언 어간끼리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모두 합성어로만 묶인다.
2번 X: 잠보, 점쟁이, 일꾼, 덮개, 넓이, 조용히는 각각 -보, -쟁이, -꾼, -개, -이, -히가 붙은 파생어이다. 틀린 표현은 '합성어로만'이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전부 파생어로 묶인다.
3번 X: 지붕은 단일어이고, 선생님은 접미사 -님이 붙은 파생어이며, 먹히다는 접미사 -히-가 붙은 파생어이다. 틀린 표현은 '합성어로만'이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단일어와 파생어가 섞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4번 X: 맨손, 군소리, 풋사랑, 빗나가다, 새파랗다는 각각 맨-, 군-, 풋-, 빗-, 새-가 붙은 파생어이다. 틀린 표현은 '합성어로만'이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파생어가 섞여 있어 합성어만의 묶음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접두사나 접미사가 익숙한 낱말처럼 굳어 있으면 합성어로 착각하기 쉽다. 특히 4번의 맨-, 군-, 풋-, 빗-, 새-와 2번의 -쟁이, -꾼, -히를 어근으로 오인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단어를 어근과 접사로 나누어 보고, 두 성분이 모두 어근이면 합성어, 한쪽이 접사이면 파생어로 판단한다. 보기 안에 단일어나 파생어가 하나라도 섞이면 '합성어로만' 묶인 보기에서 바로 제외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어근+어근은 합성어, 어근+접사는 파생어이다.

NoteBase

문 7. 밑줄 친 부분이 <보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국어에는 동일한 모음이 연속될 때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① 늦었으니 어서 자.
② 여기 잠깐만 서서 기다려.
③ 조금만 천천히 가자.
④ 일단 가 보면 알 수 있겠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활용 과정에서 같은 모음이 연속될 때 한 모음이 줄어드는 동일 모음 탈락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동일 모음 탈락은 어간 끝모음과 어미 첫모음이 같을 때 두 모음이 이어지지 않고 하나만 남는 현상이다.
'-자'처럼 모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어미가 붙은 경우는 이 현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1번 X: 밑줄 친 '자'는 '자다'에 어미 '-아'가 결합한 '자아'에서 ㅏ 하나가 탈락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보기에 해당하지 않는 예가 아니라, 동일한 ㅏ가 연속되어 하나가 줄어든 예이다.
2번 X: 밑줄 친 '서서'는 '서다'에 '-어서'가 결합한 '서어서'에서 ㅓ 하나가 탈락한 형태이다. 보기에 해당하지 않는 예가 아니라, 동일한 ㅓ가 연속되어 하나가 줄어든 예이다.
3번 O: 밑줄 친 '가자'의 '-자'는 청유형 어미이므로 '가-+-자'가 결합한 형태이다. 같은 모음 두 개가 이어진 자리가 없으므로 보기의 현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번 X: 밑줄 친 '가'는 '가다'에 연결 어미 '-아'가 결합한 '가아'에서 ㅏ 하나가 탈락한 형태이다. 보기에 해당하지 않는 예가 아니라, 동일한 ㅏ가 연속되어 하나가 줄어든 예이다.

오답 포인트

어간이 원래 모음으로 끝나면 겉으로 보이는 음절 수가 그대로여도 활용 과정에서 같은 모음이 겹쳤는지를 따져야 한다. 3번은 '가'가 보여서 4번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차이는 뒤에 붙은 어미가 '-아'인지 '-자'인지에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형태를 어간과 어미로 나눈 뒤, 어미가 '-아/-어/-아서/-어서'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지 확인한다. 그때 어간 끝모음과 어미 첫모음이 같으면 동일 모음 탈락이고, '-자'처럼 모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어미가 붙으면 이 현상이 아니다.

암기 포인트

같은 모음이 만나면 하나로 줄고, '-자'는 동일 모음 탈락이 아니라 청유형 어미 결합이다.

NoteBase

문 8. 밑줄 친 말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은?

① 점심 설겆이는 내가 할게.

② 일이 얼키고설켜서 풀기가 어렵다.

③ 감히 얻다가 대고 반말이야?

④ 모두 소매를 걷어부치고 달려들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준말 표기와 관용적으로 굳어진 말의 표준 표기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설거지는 원형을 따지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말이다.
얽히고설키다는 '얽히다'의 형태를 밝혀 적은 말이다.
얻다가는 '어디에다가'가 줄어든 말이다.
소매를 말아 올린다는 뜻은 '걷어붙이다'로 적는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7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설것이'이다.
실제로는 '설거지'이다. 현재는 '설겆다'의 형태를 살리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따라서 '점심 설거지는 내가 할게.'로 고쳐야 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얽이고설켜서'이다.
실제로는 '얽히고설켜서'이다. '얽히다'는 '얽다'의 피동형이므로 '히'를 밝혀 적는다.
따라서 '일이 얽히고설켜서 풀기가 어렵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얻다가'는 '어디에다가'가 줄어든 말로, 준말에서 남은 자음을 앞 음절 받침으로 적은 형태이다.
따라서 '감히 얻다가 대고 반말이야?'는 맞춤법에 맞는다.

④ X
틀린 부분은 밑줄 표현 전체이다.
소매를 말아 올린다는 뜻은 '걷어붙이다'이므로 '걷어붙이고'로 적어야 한다. '부치고'는 표준 표기가 아니다.
따라서 '모두 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들었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준말은 줄어든 흔적을 받침으로 적는 경우가 있고, 굳어진 낱말은 소리대로 적는 경우가 있어 둘을 뒤섞기 쉽다.
특히 '얽히고설키다', '얻다가', '걷어붙이다'처럼 입말 발음에 끌리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형이 분명히 살아 있으면 형태를 밝혀 적고, 이미 굳어져 원형 의식이 약한 말은 표준 표기를 따진다. 또한 '어디에다가→얻다가'처럼 준말은 남은 자음을 앞 음절 받침으로 적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설거지, 얽히고설키다, 얻다가, 걷어붙이다.

NoteBase

문 9. 다음은 어느 작품의 일부분이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슬프다!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거꾸로 되고 충신과 역적이 바뀌었도다. 이같이 천리에 어기어지고 덕의가 없어서 더럽고, 어둡고, 어리석고, 악독하여 금수(禽獸)만도 못한 이 세상을 장차 어찌하면 좋을꼬? 나도 또한 인간의 한 사람이라, 우리 인류 사회가 이같이 악하게 됨을 근심하여 매양 성현의 글을 읽어 성현의 마음을 본받으려 하더니, 마침 서창에 곤히 든 잠이 춘풍에 이익한 바 되매 유흥을 금치 못하여 죽장망혜(竹杖芒鞋)로 녹수를 따르고 청산을 찾아서 한 곳에 다다르니, 사면에 기화요초는 우거졌고 시냇물 소리는 종종하며 인적이 고요한데, 흰 구름 푸른 수풀 사이에 현판(懸板) 하나가 달렸거늘, 자세히 보니 다섯 글자를 크게 썼으되 '금수회의소'라 하고 그 옆에 문제를 걸었는데, '인류를 논박할 일'이라 하였고, 또 광고를 붙였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무슨 물건이든지 의견이 있거든 의견을 말하고 방청을 하려거든 방청하되 각기 자유로 하라' 하였는데, 그 곳에 모인 물건은 길짐승 · 날짐승 · 버러지 · 물고기 · 풀 · 나무 · 돌 등물이 다 모였더라.

① 연설을 서사의 방법으로 채용하여 계몽적 의도를 효과적으로 숨기고 있다.

② 해방 직후에 나타난 정치소설의 한 변형으로서, 우화적 풍자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③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인 회개를 강조하기보다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④ 표면적으로 동물들이 인류의 부패와 타락을 논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이 시기 사회의 비판과 풍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시문이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일부임을 파악하고, 이 작품의 우화적 풍자와 계몽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금수회의록」은 동물들의 회의를 빌려 인간 사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한 개화기 우화 소설이다.
이 작품의 계몽성은 사회 비판을 통해 독자의 각성과 반성을 이끌어 내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 개혁안을 설계하는 데 중심이 있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연설을 서사 속에 끌어들인 것은 맞지만 계몽적 의도를 숨긴 것은 아니다. 동물들의 발언을 통해 현실 비판과 교훈 의식을 오히려 분명하게 드러낸다. 틀린 표현은 "효과적으로 숨기고 있다"이다. 올바르게는 "우화와 연설 형식을 활용하여 계몽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이다.
② X: 우화적 풍자 형식은 맞지만 작품의 시대 규정이 틀리다. 「금수회의록」은 해방 직후 정치소설이 아니라 개화기에 나온 신소설이다. 틀린 표현은 "해방 직후에 나타난 정치소설의 한 변형"이다. 올바르게는 "개화기에 나타난 우화적 풍자 성격의 신소설"이다.
③ X: 이 작품은 사회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 제도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작품은 아니다. 도덕적 각성과 반성, 계몽의 성격이 더 강하다. 틀린 표현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우화적 비판을 통해 인간 사회의 타락을 고발하고 독자의 각성과 반성을 유도한다"이다.
④ O: 동물들이 모여 인간 사회를 성토하는 형식은 우화적 장치이다. 그러나 작품의 핵심은 동물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드러나는 당시 사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비판과 풍자에 있다.

오답 포인트

우화 소설이라는 형식만 보고 ②처럼 시대를 잘못 연결하거나, 사회 비판 작품이라는 점만 보고 ③처럼 구조 개혁 서사로 과장하기 쉽다. 이 작품은 개화기 신소설이며, 우화적 풍자와 계몽성이 중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 동물 회의, 인간 사회 비판, 우화적 발언이 나오면 먼저 「금수회의록」을 떠올리면 된다. 이후 시대는 개화기, 표현 방식은 우화적 풍자, 목적은 사회 비판과 계몽으로 정리하면 선지 판단이 쉬워진다.

암기 포인트

「금수회의록」은 동물 우화로 인간 사회를 풍자한 개화기 신소설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시가의 양식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심이 ᄂᆞᆺ 곳ᄐᆞ야 보도록 새롭거ᄂᆞᆯ
세사ᄂᆞᆫ 구롬이라 머흐도 머흘시고
엇그제 비즌 술이 어도록 니건ᄂᆞ니
잡거니 밀거니 슬ᄏᆞ장 거후로니
ᄆᆞᅀᆞᆷ의 ᄆᆡ친 시름 져그나 ᄒᆞ리ᄂᆞ다
거문고 시욹 언저 풍입송 이아고야
손인동 주인인동 다 니저 ᄇᆞ려셰라

① 조선 왕조의 창업과 번영을 송축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② 10구체의 경우 당대의 귀족, 지배층의 정신 세계를 노래하였다.

③ 조선 후기의 시정(市井)에서 직업적, 반직업적 소리꾼에 의해 가창된 노래이다.

④ 시조와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시 작품의 형식이 가사임을 파악하고, 가사와 악장·향가·잡가의 양식적 특징을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사는 4음보가 이어지는 장형 시가로, 시조보다 길게 정서와 생각을 풀어내는 갈래이다. 결정 차이축은 형식의 길이와 향유 방식이다. 가사는 연속체의 긴 형식과 서술적 전개가 핵심이고, 악장은 궁중의 송축 기능, 향가는 향찰 표기와 10구체 같은 고정 형식, 잡가는 조선 후기 시정의 전문 소리꾼 가창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조선 왕조의 창업과 번영을 송축하기 위하여"이다.
이는 악장의 설명이다. 악장은 궁중 의례에서 왕조의 창업과 번영을 찬양하는 노래이고, 제시 작품은 개인의 흥취와 정서를 길게 풀어내는 가사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10구체"이다.
10구체는 향가의 대표적 형식이다. 제시 작품은 10구체 정형시가 아니라 4음보 연속체로 전개되는 가사이며, 향가처럼 향찰 표기의 신라 시가도 아니다.

③ X
틀린 부분은 "조선 후기의 시정에서 직업적, 반직업적 소리꾼에 의해 가창된"이다.
이는 잡가의 설명이다. 잡가는 조선 후기 도시 유흥 공간에서 소리꾼이 부른 노래이고, 제시 작품은 그와 달리 가사에 해당한다.

④ O
가사는 조선 시가 문학에서 시조와 함께 발달한 갈래로, 두 양식은 서로 다른 길이와 표현 방식을 가지면서 상보적인 관계를 이룬다. 제시 작품도 길게 이어지는 율문과 구어적 표현을 보여 주므로 가사의 양식적 특징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가사·잡가·악장은 모두 조선 시대 노래라는 공통점이 있어 시대만 보고 고르면 헷갈리기 쉽다. 이 문항은 "조선 후기", "10구체", "왕조 송축"처럼 특정 갈래를 바로 떠올리게 하는 표지를 섞어 놓았으므로, 시대보다 형식과 기능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이 길게 이어지며 4음보 연속체로 정서나 생각을 서술하면 가사를 먼저 떠올린다. 왕조 찬양이면 악장, 향찰 표기와 10구체면 향가, 조선 후기 시정 소리꾼의 가창이면 잡가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가사는 긴 4음보 연속체, 악장은 궁중 송축, 향가는 향찰 10구체, 잡가는 시정 소리꾼의 노래이다.

NoteBase

문 11. <보기>의 문장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경어법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太子ㅣ 道理 일우샤 즈갱 慈悲호라 ᄒᆞ시ᄂᆞ니 ≪석보상절≫
㉡ 그 後로 人間앳 차바ᄂᆞᆫ 뻐 몯 좌시며 ≪월인석보≫
㉢ 셤 안해 자싧 제 한비 사ᄋᆞ리로ᄃᆡ 뷔어ᅀᅡ ᄌᆞᄆᆞ니이다 ≪용비어천가≫
㉣ 곳과 果實와 플와 나모와ᄅᆞᆯ 머그리도 이시며 ≪석보상절≫

① ㄱ의 '즈게'는 太子를 받는 높임의 대명사로 쓰였다.
② ㄴ의 '좌시며'는 '먹다'의 높임말로 쓰인 것이다.
③ ㄷ의 '자싧'은 '자다'의 높임말로 쓰인 것이다.
④ ㄹ의 '이시며'는 앞에 오는 '머그리'를 높이는 말로 쓰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세국어의 높임 표현이 누구를 높이는지와 특수 높임말의 기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세국어의 경어법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 특수 대명사, 특수 어휘, 선어말 어미가 다르게 쓰인다.
'즈게'는 높여야 할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고, '좌시다'와 '자시다'는 각각 '먹다', '자다'의 높임말이다.
'-시-' 계열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이므로 앞말의 동작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즈게'는 앞의 '太子'를 가리키는 높임의 대명사로 쓰였다. 높여야 할 대상을 다시 받는 말이므로 선지의 설명이 맞다.

② O
'좌시며'는 '먹다'에 대응하는 특수 높임말로 쓰였다. 중세국어에서는 식사 행위를 높일 때 이런 특수 어휘를 사용한다.

③ O
'자실'은 '자다'의 높임말인 '자시다'의 활용형이다. 따라서 잠드는 주체를 높여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④ X
틀린 부분은 '앞에 오는 머그리를 높이는 말'이라는 표현이다. '이시며'의 '-시-'는 앞말의 동작 명사 '머그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동작의 주체를 높이는 말이다. 올바르게는 '이시며는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으로 쓰였다'이다.

오답 포인트

특수 높임말과 선어말 어미의 높임 대상을 뒤섞으면 ④처럼 오해하기 쉽다. '좌시다, 자시다'는 어휘 자체가 높임말이지만, '-시-'는 문장의 주체를 높인다는 점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세국어 경어법 문제에서는 먼저 높임 표현이 대명사인지, 특수 동사인지, '-시-' 계열의 형태인지 구분한 뒤, 그 표현이 높이는 대상이 주체인지 객체인지 가려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특수 어휘는 동작 뜻 자체의 높임이고, '-시-'는 주체 높임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시들을 발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작품의 시대 순서를 대표 시구로 판별하는 순서형 문항이다.

올바른 순서

ㄷ → ㄱ → ㄴ → ㄹ이다.
ㄷ는 김소월의 「산유화」로 1924년에 발표되었다.
ㄱ은 백석의 「여승」으로 1936년에 발표되었다.
ㄴ은 김수영의 「눈」으로 1956년에 발표되었다.
ㄹ은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로 1960년대에 발표된 작품이다.
정답을 가르는 경계는 1920년대 김소월, 1930년대 백석, 1950년대 김수영, 1960년대 신동엽의 흐름을 잡는 데 있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7

선지별 해설

① X
- 선지 순서: ㄱ → ㄷ → ㄴ → ㄹ
- 틀린 부분: 맨 앞에서 ㄱ(「여승」, 1936)을 ㄷ(「산유화」, 1924)보다 먼저 놓았다. 뒤의 ㄴ → ㄹ 순서는 맞다.
- 올바르게는: 김소월의 「산유화」가 백석의 「여승」보다 앞서므로 ㄷ → ㄱ으로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ㄷ → ㄱ → ㄴ → ㄹ이다.

② X
- 선지 순서: ㄱ → ㄷ → ㄹ → ㄴ
- 틀린 부분: 맨 앞에서 ㄱ을 ㄷ보다 먼저 놓았고, 뒤에서도 ㄹ을 ㄴ보다 먼저 놓았다.
- 올바르게는: 「산유화」(1924)가 「여승」(1936)보다 앞서고, 「눈」(1956)이 「껍데기는 가라」(1960년대)보다 앞선다. 따라서 ㄷ → ㄱ → ㄴ → ㄹ이다.

③ O
- 선지 순서: ㄷ → ㄱ → ㄴ → ㄹ
- ㄷ 「산유화」(1924) → ㄱ 「여승」(1936) → ㄴ 「눈」(1956) → ㄹ 「껍데기는 가라」(1960년대) 순으로 이어지므로 발표 순서가 맞다.

④ X
- 선지 순서: ㄷ → ㄱ → ㄹ → ㄴ
- 틀린 부분: 맨 앞의 ㄷ → ㄱ은 정답과 같지만, 뒤에서 ㄹ을 ㄴ보다 먼저 놓았다.
- 올바르게는: 김수영의 「눈」이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보다 앞서므로 ㄴ → ㄹ 순이어야 한다. 따라서 ㄷ → ㄱ → ㄴ → ㄹ이다.

오답 포인트

백석의 「여승」과 김소월의 「산유화」를 모두 일제강점기 작품으로만 묶어 두면 선후를 놓치기 쉽다. 또 김수영과 신동엽을 모두 현대 참여 의식의 시인으로 뭉뚱그리면 ㄴ과 ㄹ의 순서를 바꾸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 배열 문제는 시구를 보고 작품명과 작가를 먼저 확정한 뒤, 1920년대·1930년대·1950년대·1960년대처럼 시대 축에 올려 놓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김소월 1920년대, 백석 1930년대, 김수영 1950년대, 신동엽 1960년대의 흐름으로 기억해 두면 된다.

NoteBase

문 13. 다음 중 한자어의 의미관계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① 發送 - 郵送

② 供給 - 需要

③ 脫退 - 加入

④ 惡化 - 好轉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자어 쌍이 유의 관계인지 반의 관계인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의 관계는 뜻이 서로 비슷한 말의 관계이다.
반의 관계는 뜻이 서로 반대되는 말의 관계이다.
이 문항에서는 세 쌍이 반의 관계이고 하나만 유의 관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發送'은 보내어 부침을 뜻하고 '郵送'은 우편으로 보냄을 뜻하므로 둘 다 '보내다'라는 뜻권 안에 있는 유의 관계이다.
- 따라서 나머지 셋과 의미관계가 가장 다르므로 정답이다.

② X
- '供給'은 필요한 물자나 서비스를 제공함이고 '需要'는 그것을 필요로 하여 구함이므로 서로 마주 선 반의 관계에 가깝다.
- 틀린 표현은 이 둘을 유의 관계로 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공급과 수요의 대응 관계로 이해한다.

③ X
- '脫退'는 모임이나 조직에서 빠져나옴이고 '加入'은 새로 들어감이므로 반대 방향의 반의 관계이다.
- 틀린 표현은 둘의 뜻이 비슷하다고 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탈퇴와 가입의 대립으로 본다.

④ X
- '惡化'는 상태가 나빠짐이고 '好轉'은 상태가 좋아짐이므로 서로 반대되는 반의 관계이다.
- 틀린 표현은 둘을 같은 방향의 변화로 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악화와 호전의 대립으로 본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發送-郵送'은 모두 '보냄'과 관련되어 있어 구체적 방식 차이만 있고 큰 뜻은 비슷하다. 반면 ②, ③, ④는 각각 공급/수요, 탈퇴/가입, 악화/호전처럼 방향이 정반대인데, 한자어 뜻풀이를 어렴풋이만 기억하면 모두 관련어로 묶어 버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어 짝을 보면 먼저 각 낱말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 본다. 풀어 쓴 뜻이 비슷하면 유의 관계이고, 한쪽이 다른 한쪽의 반대 방향이나 반대 상태를 가리키면 반의 관계이다.

암기 포인트

발송-우송은 비슷한 말, 공급-수요 · 탈퇴-가입 · 악화-호전은 반대말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중 로마자 표기법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도: Dokdo

② 불국사: Bulguksa

③ 극락전: Geukrakjeon

④ 촉석루: Chokseongnu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유 명사의 로마자 표기에서 자음 동화는 반영하고 된소리되기는 반영하지 않는 원칙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로마자 표기법은 문화재명과 지명도 정해진 표기 원칙과 용례에 따라 적는다.
자음 동화는 받침과 뒤 음이 만나 [긍낙], [성누]처럼 바뀐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는 경우이다.
된소리되기는 [독또], [국싸]처럼 소리가 거세지거나 된소리로 나더라도 kk, ss처럼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독도'는 [독또]로 발음되지만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Dokdo가 맞다.
2번 O: '불국사'도 [불국싸]로 소리 나지만 된소리되기를 적지 않으므로 Bulguksa가 맞다.
3번 X: 틀린 부분은 'Geukrakjeon'이다. '극락전'은 [긍낙쩐]으로 발음되어 자음 동화가 반영되므로 올바른 표기는 Geungnakjeon이다.
4번 O: '촉석루'는 [촉성누]로 발음되어 자음 동화가 반영된 Chokseongnu가 맞다.

오답 포인트

③은 한글 글자값을 기계적으로 끊어 읽으면 Geukrakjeon처럼 보인다는 점이 함정이다. 이 문항은 받침을 그대로 옮길지, 실제 음운 변화를 반영할지를 구별하는지를 노린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받침 뒤에서 소리가 [ㅇㄴ], [ㄴㄴ]처럼 바뀌는 자음 동화인지, [ㄲ], [ㅆ]처럼 된소리되기만 일어나는지를 먼저 구분하면 된다. 자음 동화는 반영하고 된소리되기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된소리는 적지 않고 동화된 소리는 반영한다: Dokdo, Bulguksa / Geungnakjeon, Chokseongnu.

NoteBase

문 15. 다음 글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성향 하나는 시장과 시장 친화적 사고가 시장과는 거리가 먼 기준의 지배를 받던 전통적 삶의 영역까지 파고든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국가가 병역이나 죄수 심문을 민간 도급업체나 별도 인력을 고용해 맡길 때, 부모가 개발도상국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임신과 출산을 의뢰할 때, 콩팥을 공개시장에서 사고팔 때 어떤 도덕적 문제들이 생기는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런 예는 많다. 학업 성취도가 부진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표준화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낼 경우 상금으로 포상해야 하는가?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갔다면 교사가 보너스를 받아야 하는가? 국가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재소자 수용을 맡겨야 하는가? 이는 공리의 합의만을 묻는 게 아니다. 그것은 군 복무, 출산, 가르침과 배움, 범죄자 처벌 등을 받아들이는 일 같은 중요한 사회적 행위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에 관한 물음이기도 하다.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기에, 시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싶은 비시장 규범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

① 시장 친화적 사고는 비도덕적이다.

② 사회적 행위는 올바른 규범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의 가치에 맡기는 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③ 전통적인 삶의 영역으로 시장 친화적 사고가 침투하는 이유는 국가가 공리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④ 군 복무나 출산, 가르침과 배움 등은 시장과 시장 친화적 원리가 적용되기에 적합한 것들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장 친화적 사고와 비시장 규범의 차이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사회적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지를 추론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장 친화적 사고는 어떤 행위를 시장의 교환 가치와 효율의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관점이다.
비시장 규범은 군 복무, 출산, 가르침과 배움, 범죄자 처벌 같은 중요한 사회적 행위를 돈이나 거래 논리만으로 재지 않도록 지키는 기준이다.
지문은 시장이 이런 영역까지 침투하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지문은 시장 친화적 사고 자체를 곧바로 비도덕적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문제 삼는 것은 시장 논리가 전통적 삶의 영역까지 침투할 때 생기는 도덕적 문제와 규범의 훼손이다. 틀린 표현은 '비도덕적이다'이다. 올바르게는 '시장 친화적 사고가 모든 사회적 행위의 가치를 재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이다.
2번: O. 지문은 군 복무, 출산, 가르침과 배움, 범죄자 처벌 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위이므로, 이를 시장에 맡기면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행위에는 올바른 규범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시장 가치에 맡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진술이 지문의 핵심 주장과 가장 가깝다.
3번: X. 지문은 국가가 병역이나 죄수 심문을 민간에 맡기는 사례를 예로 들 뿐, 시장 친화적 사고가 침투하는 이유를 '국가가 공리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이유는 국가가 공리를 추구하기 때문이다'이다. 올바르게는 '시장과 시장 친화적 사고가 전통적 삶의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시된다'이다.
4번: X. 지문은 군 복무나 출산, 가르침과 배움 등을 시장 원리에 맡기기 적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행위는 시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비시장 규범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틀린 표현은 '적합한 것들이다'이다. 올바르게는 '시장과 시장 친화적 원리가 적용되기에 신중해야 할 영역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1번처럼 글의 문제 제기를 곧바로 '시장 친화적 사고는 비도덕적이다'라는 전면 부정으로 과장하면 틀린다. 4번처럼 예시로 든 영역을 시장 적용의 적합 사례로 뒤집어 읽는 것도 대표적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이 어떤 대상을 전면 부정하는지, 아니면 그 대상이 적용되는 범위와 기준을 문제 삼는지를 먼저 구분하면 된다. 이어서 필자의 결론이 '시장 확대'인지 '비시장 규범의 필요'인지 확인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이 글의 핵심은 시장 자체의 선악이 아니라, 시장 논리로 재면 안 되는 사회적 행위를 비시장 규범으로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중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의 근대국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언문일치가 이루어졌다.

② 시상법 체계에서 과거 시제가 확립되었다.

③ 유성마찰음계열인 'ㅱ, ㅿ'이 실제로 존재했다.

④ 의문문은 판정 의문과 설명 의문이 구별되기 시작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근대국어가 중세국어의 특징을 이어받으면서도 어떤 문법 변화가 새롭게 자리 잡았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세국어는 유성 마찰음과 판정 의문·설명 의문의 형태적 구별이 비교적 분명한 시기이다.
근대국어는 중세국어의 복잡한 체계가 단순화되면서 현대국어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이다.
언문일치는 말과 글이 실제로 가까워지는 현상인데, 본격적인 정착은 근대국어 시기보다 뒤의 일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언문일치가 이루어졌다'이다. 근대국어 말기에도 국한문체와 문어체가 널리 쓰였으므로 말과 글이 완전히 일치한 단계는 아니다. 올바르게는 '언문일치는 20세기 이후 본격화되었다'고 고쳐야 한다.
2번 O: 근대국어에서는 '-었-' 계열이 과거를 나타내는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시상법 체계에서 과거 시제가 뚜렷해졌다. 중세국어의 상 중심 체계가 현대국어와 가까운 시제 체계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여 주는 선지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실제로 존재했다'이다. ㅱ · ㅿ 같은 유성 마찰음 계열은 중세국어에서는 기능했지만 근대국어에 오면 음운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사라진다. 올바르게는 '근대국어에서는 이러한 유성 마찰음이 소멸하였다'고 고쳐야 한다.
4번 X: 틀린 부분은 '구별되기 시작했다'이다. 판정 의문과 설명 의문의 형태적 구별은 이미 중세국어에서 나타난다. 올바르게는 '근대국어에서는 그 구별이 새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고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근대국어는 현대국어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이므로, 현대국어에서 익숙한 현상을 그대로 끌어오면 틀리기 쉽다. 특히 '이루어졌다', '실제로 존재했다', '시작했다'처럼 시기를 단정하는 표현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어사 선지는 먼저 중세국어의 특징인지, 근대국어에서 새로 굳어진 변화인지, 현대국어에 가서야 일반화된 현상인지로 나누어 판단한다. 음운 소멸, 시제 확립, 문체 변화의 시기를 각각 따로 잡으면 정답이 선명해진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근대국어는 유성마찰음 소멸, 과거 시제 확립, 언문일치 미완으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17. 다음 밑줄 친 시어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탓하랴.

주렴 밖에 ㉠ 성긴 별이
하나 둘 스러지고

㉡ 귀촉도 울음 뒤에
머언 산이 다가 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이얀 미닫이가
㉢ 우련 붉어라.

문허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 저허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 조지훈, 「낙화」(1946)

① ㉠성긴: 물건 사이가 떠서 빈 공간이 많음을 뜻한다.

② ㉡귀촉도: 소쩍새, 두견새를 뜻한다.

③ ㉢우련: 갑자기, 불쑥 나타남을 뜻한다.

④ ㉣저허하노니: 두려워하노니

NoteBase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어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 속 의미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성긴은 사이가 벌어져 드문드문한 상태를 뜻한다. 귀촉도는 소쩍새, 두견새를 가리킨다. 우련은 빛깔이 엷고 희미한 상태를 뜻한다. 저허하노니는 두려워하노니, 꺼려하노니의 뜻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 성긴은 '드문드문하여 빈틈이 많은'이라는 뜻이므로 '물건 사이가 떠서 빈 공간이 많음'이라는 설명이 맞다. '성긴 별'은 별이 촘촘하지 않고 듬성듬성 떠 있는 모습을 말한다.
2번 O: ㉡ 귀촉도는 우리말로 소쩍새, 두견새를 뜻한다. 시에서 귀촉도의 울음은 쓸쓸한 정서를 불러오는 소재로 자주 쓰인다.
3번 X: 틀린 부분은 '갑자기, 불쑥 나타남'이다. ㉢ 우련은 갑작스러움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희미하게, 엷게'의 뜻이다. 따라서 '하이얀 미닫이가 우련 붉어라'는 하얀 미닫이가 엷게 붉어 보인다는 뜻이다.
4번 O: ㉣ 저허하노니는 '두려워하노니' 또는 '꺼려하노니'의 뜻이므로 제시된 설명이 문맥상 타당하다. 화자는 자신의 고운 마음을 남이 알아줄지 조심스럽고 두려운 심정을 드러낸다.

오답 포인트

3번은 우련을 소리나 움직임의 돌발성으로 오해하면 틀린다. 이 시에서는 미닫이의 색감이 엷게 물드는 시각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전적 시어는 단어만 떼어 보지 말고 앞뒤 이미지와 함께 판단한다. 색채와 빛의 변화가 이어지면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감정 고백이 이어지면 심리를 나타내는 말로 연결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우련은 갑자기가 아니라 희미하게이고, 귀촉도는 소쩍새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중 뜻이 비슷한 사자성어끼리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① 同病相憐 - 兩寡分悲

② 口如懸河 - 口尙乳臭

③ 衣錦夜行 - 夜行被繡

④ 望雲之情 - 白雲孤飛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뜻이 비슷한 사자성어끼리의 대응을 묻고, 한 쌍만 서로 다른 뜻임을 가려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병상련은 같은 아픔을 겪는 처지라 서로 잘 이해하고 가엾게 여김을 뜻한다.
양과분비는 홀아비와 과부처럼 외롭고 불행한 처지가 서로 슬픔을 나눈다는 뜻이다.
구여현하는 입에서 흐르는 말이 마치 매달린 강물처럼 거침없다는 뜻으로, 말을 매우 잘함을 이른다.
구상유취는 입에서 아직 젖 냄새가 난다는 뜻으로, 어리고 미숙함을 이른다.
의금야행과 야행피수는 모두 훌륭한 차림이나 재능을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한다.
망운지정과 백운고비는 모두 타향에서 부모를 그리는 마음을 나타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동병상련과 양과분비는 모두 비슷한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서로의 슬픔을 공감한다는 뜻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구여현하와 구상유취를 비슷한 뜻으로 묶은 점이다.
구여현하는 말을 매우 잘하고 거침없이 잘함을 뜻한다.
구상유취는 아직 어려서 말과 행동이 유치하고 미숙함을 뜻한다.
올바르게는 구여현하는 변설과 웅변의 뛰어남, 구상유취는 미성숙함을 나타내므로 서로 뜻이 비슷하지 않다.

③ O
의금야행과 야행피수는 모두 비단옷이나 수놓은 옷을 밤에 입고 가는 데서 나온 말로, 좋은 재능이나 영예가 드러나지 못함을 비유한다.

④ O
망운지정은 구름을 바라보며 부모를 그리는 마음이고, 백운고비도 타향에 있는 자식이 부모를 사모하는 마음을 외로운 구름에 빗댄 말이어서 뜻이 통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두 성어가 모두 입 구(口) 자로 시작해 말과 관련된 뜻처럼 보인다는 점이 함정이다. 그러나 구여현하는 말솜씨의 뛰어남이고, 구상유취는 나이와 태도의 미숙함이므로 의미 영역 자체가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자성어 짝짓기 문제는 먼저 각 성어의 핵심 뜻을 한 단어로 줄여 본다. 동병상련·양과분비는 공감, 의금야행·야행피수는 재능 불인정, 망운지정·백운고비는 부모 그리움으로 묶이고, 구여현하는 말솜씨, 구상유취는 미숙함으로 갈리므로 ②가 바로 걸러진다.

암기 포인트

구여현하는 말이 강물처럼 쏟아지는 모습이고, 구상유취는 입에서 젖내가 나는 아이의 모습이므로 두 성어는 전혀 다른 뜻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중 '雲從龍風從虎'라는 말과 뜻이 가장 잘 통하는 속담은?

①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② 말 갈 데 소 갈 데 다 다녔다

③ 바람 부는 대로 돛을 단다

④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온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자 성어의 비유적 뜻을 일상 속담의 의미와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雲從龍風從虎'는 구름이 용을 따르고 바람이 호랑이를 따른다는 말로, 서로 기운이 맞는 존재가 자연스럽게 어울리거나 한쪽이 가면 다른 한쪽도 따라붙는 관계를 이른다.
핵심 구별점은 '늘 함께 따름'인지, '여기저기 돌아다님'인지, '형세에 편승함'인지, '앞일의 징조'인지를 가르는 데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바늘 가는 데 실 간다'는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따라간다는 말로, 서로 떨어지기 어려운 관계이거나 한쪽을 따라 다른 한쪽이 함께 움직이는 상황을 이른다. '雲從龍風從虎'와 가장 가깝다.
② X: '말 갈 데 소 갈 데 다 다녔다'는 이곳저곳 안 다닌 데 없이 두루 돌아다녔다는 뜻이다. 틀린 부분은 '함께 따르는 관계'로 읽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님'을 나타내는 속담이다.
③ X: '바람 부는 대로 돛을 단다'는 형편과 세력의 흐름에 맞추어 줏대 없이 처신하거나 기회에 편승함을 이른다. 틀린 부분은 '자연스러운 동행 관계'로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상황 따라 태도를 바꿈'을 뜻한다.
④ X: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온다'는 어떤 징조를 보고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짐작하는 말이다. 틀린 부분은 '서로 따르는 관계'로 해석하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앞일의 징후'를 나타내는 속담이다.

오답 포인트

'구름'과 '바람'이 들어 있으므로 ③이나 ④처럼 자연 현상을 직접 말한 속담으로 끌리기 쉽다. 그러나 이 성어는 날씨 설명이 아니라, 한쪽이 나타나면 다른 한쪽이 자연히 따른다는 관계의 비유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 성어나 속담의 뜻을 묻는 문제에서는 먼저 비유의 중심 관계를 잡는다. 이 문항에서는 '무엇이 무엇을 따라간다'가 핵심이므로, 함께 붙어 다니는 관계를 뜻하는 표현을 고르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雲從龍風從虎 = 용에는 구름, 호랑이에는 바람이 따르듯 서로 맞는 것이 자연히 따른다.

NoteBase

문 20. 다음 지문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변증술은 한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다른 사람이 논파하려 드는 게임과 같은 것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토피카』에서 하나의 주장을 공격 또는 방어하는 요령을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는 시도를 했다. 공방의 대상이 되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무엇보다도 논쟁을 하는 두 사람이 같이 설정한 주제가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말을 한다면 그냥 서로 딴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니 논쟁이 성립되지 않는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상황은 언어적으로는 결국 주어는 같고 술어는 서로 상반되는 두 명제에 의해 반영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주어를 술어에 귀속시키는 서술 방식을 유형별로 나누어 공방의 요령을 정리했다. 그때 그가 유형 구별의 일차적인 표지로 삼은 것은 '무엇인지(ti)', '어떤지(poion)', '얼마인지(poson)', '언제(pote)', '어디서(pou)' 등과 같은 의문사였다. 이런 의문사는 요구되는 적절한 답의 범위를 우선적으로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 가령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참새를 가리키며 그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그것이 아주 작다는 답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 새가 작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답은 그저 엉뚱한 동문서답일 뿐이다. 반면 종달새라고 답을 했다면 그 답은 틀리기는 해도 동문서답은 아니다. 그럴 경우는 진위를 판가름을 하기 위한 시비를 시작할 수 있지만, 작다는 답은 맞고 틀리고 이전에 답을 하는 쪽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판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듯 의문사는 적절한 답의 범위를 정해주면서 곧 진위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논의 주제에 적실한 서술 범위의 경계를 표시해준다.

① 주어를 술어에 귀속시키는 서술 방식을 유형별로 구별하는 일차적인 표지는 의문사이다.

② 공방의 대상이 되는 주장이 성립한다는 것은 언어적으로는 서로 주어가 다른 명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반영된다.

③ "나무의 색깔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나무의 종류가 무엇이다"라고 대답한다면 대답의 진위 판단이 가능하다.

④ 의문사는 답의 범위를 정해주지만 논의 주제에 적실한 서술 범위의 경계를 표시하지는 않는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의문사가 요구하는 답의 범위와, 그 범위 안에서만 진위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적실한 대답은 질문이 요구한 범주에 맞는 대답이다. 의문사는 무엇, 어떤, 얼마나, 언제, 어디서처럼 답이 들어와야 할 자리의 종류를 먼저 한정한다.
진위 판단은 그 범주에 맞는 대답이 제시된 뒤에야 가능하다. 범주 자체를 벗어난 답은 참거짓 이전에 동문서답이다.
논쟁의 성립은 같은 주어에 대해 상반된 술어가 붙는 경우와 관련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의문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술 유형을 가르는 일차적 표지로 제시한 것이다. 무엇, 어떤, 얼마나, 언제, 어디서 같은 물음말이 주어에 어떤 종류의 술어가 붙어야 하는지 범주를 먼저 정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서로 주어가 다른 명제"이다. 지문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언어적으로는 주어는 같고 술어는 서로 상반되는 두 명제로 반영된다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주어는 같고 술어가 상반되는 명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반영된다"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대답의 진위 판단이 가능하다"이다. 질문이 색깔을 묻는데 종류로 답하면 질문이 요구한 범주를 벗어난다. 이런 경우는 참거짓을 가리기 전에 질문을 잘못 이해한 동문서답으로 본다.
올바르게는 "질문이 요구한 범주와 맞지 않아 진위 판단 이전에 부적절한 답으로 처리된다"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서술 범위의 경계를 표시하지는 않는다"이다. 지문은 의문사가 적절한 답의 범위를 정해 줄 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논의 주제에 적실한 서술 범위의 경계를 표시한다고 말한다.
올바르게는 "의문사는 답의 범위를 정해 주면서 논의 주제에 적실한 서술 범위의 경계도 표시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적실성 판단과 진위 판단을 섞어 버리게 만드는 데 있다. ③처럼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문장도, 질문이 요구한 범주를 어기면 참거짓 이전에 탈락한다. ②는 논쟁의 성립 조건을 읽을 때 주어와 술어의 관계를 뒤집기 쉬운 점을 노린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질문이 무엇을 묻는지 보고 답의 범주를 정한다. 그다음 선지가 그 범주 안에서 답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범주에 맞지 않으면 진위 판단 이전의 동문서답이고, 범주에 맞을 때만 맞고 틀림을 가릴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의문사는 답의 범주를 정하고, 범주에 맞아야만 진위 판단이 시작된다.

NoteBase